

환경친화적인 어촌친수공간 조성방향

어촌에 대한 투자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과 생물에 초점을 맞춰야

윤 상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관광연구실 부연구위원

어촌은 전체적인 수산업의 쇠퇴에 기인하여 점차 삶의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수산물 총생산량은 98년에 303만톤에 그쳐 85년 이후 지속적인 담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GNP 중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6%에 그치고 있다.

어가소득은 85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수산물 소비 증가추세에 편승하여 90년도에 비해 98년에 2배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어 냈으나, 여전히 도시가계소득의 74%, 농가소득의 87%에 머무르는 등 상대적 열위상황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어가소득 중에서도 어업외소득은 전체 소득의 29%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어업외 소득의 47%는 농업소득으로서 소득구조 역시 매우 단순·취약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어촌의 부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촌을 이용한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바다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태관광의 장소로서 최근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 식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선한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촌 현지에서의 수산물 소비 패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또 상수도나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도로 등 생활환경시설도 타지역에 비해 열악하여 정주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촌의 부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촌을 이용한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바다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태관광의 장소로서 최근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 식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선한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촌 현지에서의 수산물 소비 패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또 바다에 대한 동경과 관심의 증가로 해안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각종 레저와 여가 활동 인구가 크게 늘고 있고 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도시민들은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쾌적한 해안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듯 어촌을 둘러싼 두 가지의 큰 흐름, 수산업의 전반적인 쇠퇴와 바다와 어촌으로 향하는 관광객 증가 현상은 새로운 어촌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투자방향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치 가능한 시설이 무엇이며 도입이 가능한 분야가 어느 분야이며 또한 이러한 친수공간 개발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촌친수공간의 개념

어촌친수공간은 광의의 의미로 '어촌지역에서 인간과 바다가 공유하는 모든 공간, 친수산업적 공간, 친어업인적 공간, 친해양환경적 공간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행위나 기회 등을 포함한다'로 정의할 수 있다.

위의 개념을 협의의 의미로 구체화 하면 '어촌지역에서 친수행위가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과 그 기반시설'로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의미로 개념화 하고 어촌지역의 친수를 위한 기반정비로서 의미를 제한한다.

어촌친수시설은 <표-1>에서 보듯이 조망, 갯바위 낚시, 산책로, 해수욕장, 해수풀장, 해수탕, 바지선 낚시, 보트놀이, 체험어장,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식당 등 자연적 및 인위적인 여러가지 친수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그러한 친수

〈표-1〉 수변 입지별 친수활동 형태

| 구 분 | 친수활동 사례 |
|---------|--|
| 하천상류 | boating, 젃트스키, 요트, 수상스키, auto camp, canoe, hiking, 야영, 불꽃놀이, 조정장(rowing), 뗏목타기, 바베큐, 캠프파이어, 등(燈) 홀려보내기, 바자회 등의 이벤트, 연날리기, 운동놀이 등 |
| 하천하류 | 피크닉, 야유회, 야영, driving, 유보도 등 |
| 호 수 | 야유회, 피크닉, 야영 등 |
| 어 촌 | wind surfing, scuba-diving, boating, 갯바위 낚시·유어선 낚시, 수영, 수상스키, 유람선, 산책로 등 |
| 어 항 | 유람선, 해양박람회, 수족관, 박물관, 인공섬, 마리나, 보도 등 |
| 저수지·댐 | 유보도, driving, 야유회, 피크닉, 야영 등 |
| 인공어촌 | 해수탕, 해수풀장, 인공해수욕장, 체험어장, 해중공원, 바지선 낚시, 낚시공원, 유람선, 계단식 호안, 휴게실, 전망탑, 산책로 등 |
| 인공어항 | 유람선, 해양박람회, 수족관, 박물관, 인공섬, 마리나, 유보도 등 |
| 인공도심,기타 | 수족관, 박물관, 인공해수풀장, 민속관광촌, 각종 이벤트개발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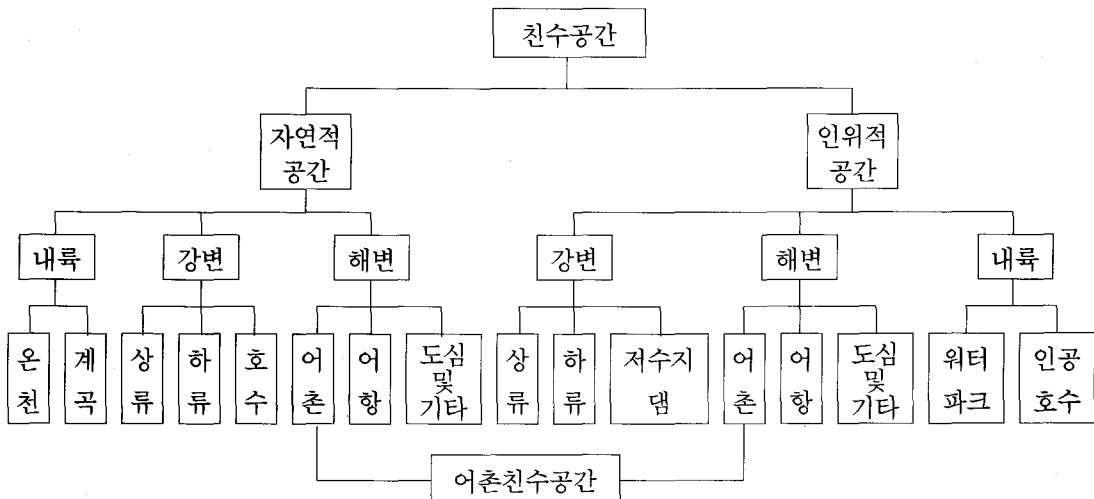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어촌·어항시설내 혹은 어촌 인접 지역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림-1〉에서와 같이 친수공간은 여러가지 공간적 범위를 가지나 어촌친수공간은 해변의 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자연적, 인공적 친수공간의 범주에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촌친수공간의 특징

어촌친수공간은 위치가 어촌 지역에 있다는 점이 여타 지역의 친수공간과 크게 대별된다. 이러한 위치의 차이는 곧 개발의 과정이 달라짐을 의미하며 주민의 정주공간과 산업활동공간, 관광공간이 결합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할 수 있다. 공간을 어촌친수공간이라고 즉, 어촌친수공간은 이러한

〈그림-1〉 어촌친수공간의 공간적 범위



어촌친수공간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은 첫째로 사람 마음의 풍요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쾌적성의 창출기술, 둘째는 사회기반시설(infra) 장비에 관한 건설기술을 중심으로 공간창출을 위한 기술, 셋째는 양질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창출 및 유지보전을 위한 기술, 넷째는 시설을 포함한 안전방재에 관한 기술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다.

① 주거공간, 산업활동공간, 관광활동공간의 다기능적 이용

② 환경파괴적이 아닌 친환경적 개발이며 대규모 인공공간 건설은 지양하고 자연공간의 최대한 효율적 이용

③ 상업시설의 경우 지역 수산업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주안점으로 개발

④ 기존의 수산업적 기반의 붕괴가 아닌 공존의 개념으로 개발

⑤ 산업활동 자체의 관광자원화

⑥ 대규모 투자유발 사업이 아닌 소규모 기반장비를 통한 공간 개발

⑦ 수산업의 재활력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도입

⑧ 어촌의 생활환경개선 효과가 충족되도록 개발 추진

⑨ 기존의 어촌투자 재원을 이용한 투자 가능

⑩ 어촌지역 자생조직을 통한 운영과 관리를 고려

⑪ 단일지역 집중개발이 아닌 권역의 저밀도 개발을 통한 다양한 공간활용방안 도출 가능

⑫ 실외공간 위주의 개발로 계절적 요인이 강함

⑬ 수산물 생산시기에 따른 공간이용의 시기성

⑭ 지역고유 문화유산의 재발견을 통한 어촌문화 제고

⑮ 특정 관광행태를 위한 시설이 아닌 지역 인프라적인 공간 제공

⑯ 수요에 따른 공급적 개발과 더불어 수요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개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어촌친수공간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개발효과의 흐름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어촌지역의 자연·경제적 조건을 이용한 지역개발

- 지역개발을 통한 어촌의 활성화

- 어촌 활성화에 의한 소득원 개발

- 소득개발을 통한 정주요건 충족

- 정주요건 충족을 통한 지역 재개발

- 지역 재개발을 기초로 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

그러나 어촌의 개발은 대부분 지형적인 이유로 토지공급의 제한이라는 문제와 대면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공유수면의 이용을 불가피하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의 공유수면 이용자인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다음의 선행요건을 충분

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①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합의 도출
- ② 계획적 개발로 환경폐해 최소화
- ③ 소규모 투자 위주의 사업 수행
- ④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기법의 수립

어촌친수공간 도입가능 시설

어촌친수공간에는 특별한 도입 규제시설을 둘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대량의 대기·수질·토양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시설과 지역의 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과도한 규모의 시설, 해풍에 심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어촌친수공간 시설을 살펴본다.

1) 산업적 이용

- 어항,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계류장 수산가공시설, 수산유통시설
- 마리나, 낚시터, 낚시선, 크루즈, 해수욕장, 해수수영장, 해수목욕탕, 체험어장, 수쿠버 등 관광관련시설
- 풍력발전기, 오수정화시

설 등 기반산업시설

- 기념품제작, 특산물 제작 등과 같은 소규모 제조업 관련시설
- 선박운항 등 교통관련시설

2) 상업적 이용

- 식당, 레스토랑, 수산물 판매장, 활어횃집 등 음식점
- 기념품 판매, 낚시용구 판매점 및 기타 소모품 판매시설 상가
- 관련산업의 사무실 및 소규모 숙박시설

- 복합건물

3) 주거용 이용

- 휴양주거지 개발 및 콘도 등 준주거시설
- 지역 어업인의 주거용 시설
- 피난어선원의 간이 주거시설

4) 친수공원

- 수중공원, 해중전망대 등 인공공원시설
- 몽돌해변, 갯바위 전망대 등 자원이용공원시설

- 녹지공간

- 벤취, 음용수대, 화장실, 조명시설, 안내판 등 편의시설

5) 교통도로

- 어항연결도로, 연육도로, 가교, 해안도로, 호안도로, 마을우회도로 등 도로시설

6) 주차시설

- 시설지역과 해안의 완충 지역 공간을 활용

7) 공공접근시설

-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강로 등 접근 편의시설
- 지역소개 안내판,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 호안 등 해안보전시설

8) 전망대 및 전망로

- 산업적 이용지역의 접근이 용이치 못한 경우 일부공간을 이용하여 조성

9) 역사문화적 이용

- 인근의 유물이나 역사적 사실을 형상화하여 자원활용

10) 예술공간 이용

- 조각 등의 상설전시를 통한 공간 이용

11) 행사와 축제

- 항구의 날, 풍어제, 수영대회, 서핑대회, 수산물축제 등을 통한 공간활용

어촌친수공간의 개발기술

어촌친수공간 구상 실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은 종래 일반적으로 사용된 표준화된 콘크리트 구조물, 어항시설, 매립 등에 관한 하드웨어 기술개념만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다.

이는 기술수준의 문제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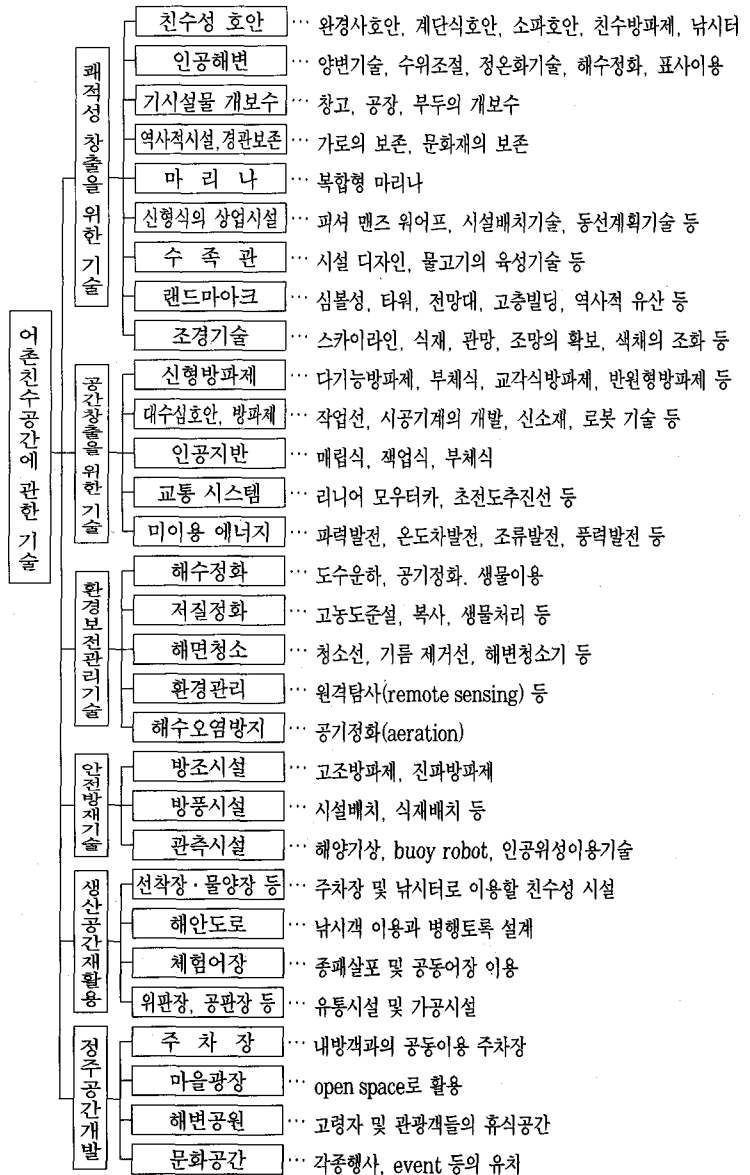
기획특집 ②

나라 기술의 조합방법이나 시점을 바꾸어 사물을 보는 방법이 중요해진 것이다. 즉, 경제일반도로 발전해온 관점의 사회를 사람이나 생물에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하며 현지어건과 부합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어떻게 기술을 도입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물과 접촉하고, 바다를 느끼며, 수변에 모여서 교류가 시작되는 그러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위기, 조경경관, 동선 등의 심리를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어촌친수공간의 최대 자원인 수질이나 해양생물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보다 더 좋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어촌친수공간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은 <그림-2>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첫째로 사람 마음의 풍요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쾌적성의 창출기술, 둘째는 사회기반시설(infra) 정비에 관한 건설기술을 중심으로 공간창출을 위한 기술, 셋째는 양질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창출 및 유지보전을 위한 기술, 넷째는 시설을 포



<그림-2> 어촌친수공간과 관련된 기술분야

함한 안전방재에 관한 기술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어촌친수공간은 이미 수산업이라는 산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의 공통적인 4가

지 기술에 부가하여 생산기반 시설 건설기술과 연계된 공간 창출 기술이며 현지의 거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㉔